

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생활 전기안전 캠페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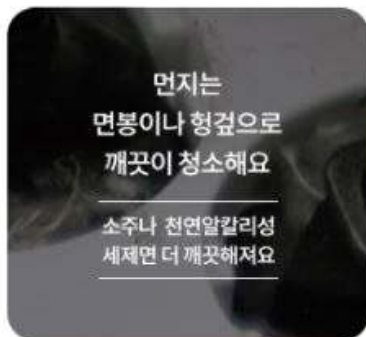
-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서부지사-

‘20년 여름은 역대급 가장 긴 장마를 힘겹게 보냈지만 다시 찾아온 태풍으로 인해 전기재해 위험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. 이에,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서부지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전기안전을 위해 늘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

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생활속 전기재해 예방법 “우리집 전기안전은 내가 지켜요” 캠페인을 게재합니다.

1. 장마철 또는 태풍으로 인한 폭우 대비 전기안전 확인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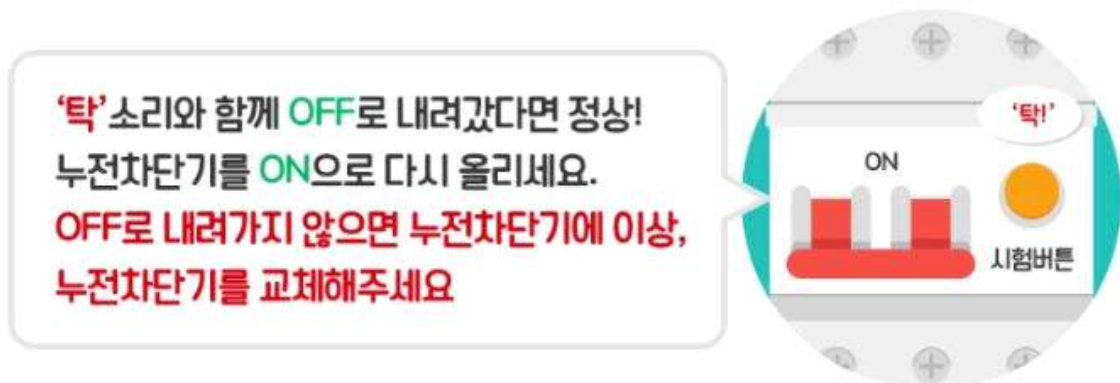
- 첫 번째, 콘센트, 전선커버 확인 하셨나요?



먼지가 낀 콘센트는 차단기를 반드시 내리고 먼지를 털어 주세요.

벗겨진 전선은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교체하고, 커버가 깨진 콘센트는 커버 깨우거나 차단기를 내린 후 교체해 주세요.

- 두 번째, 분전반 누전차단기 점검했나요?



우리집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를 가끔 점검해 주세요. 무리하게 테스트 버튼을 계속 누르지 말고 한번 눌렀을 때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가까운 시공업체로 문의하여 교체해 주세요

○ 세 번째, 침수가 발생 했다면 전원은 차단하셨나요?

모든 수습의 시작은 **전원차단**부터 입니다.
아래 체크사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.



- ✓ 침수된 곳에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원 차단 체크
- ✓ 물을 퍼내는 양수기를 사용한다면 침수되지 않은 콘센트에 꽂고 절연장갑은 필수
- ✓ 침수 이후 차단기에 접근할 때는 한국전기안전공사(1588-7500)에 연락하여 안전점검

침수가 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, 분전반내 차단기를 내려 전원을 차단시킨 후, 가전제품의 코드 또한 모두 뽑은 다음 1588-7500으로 전화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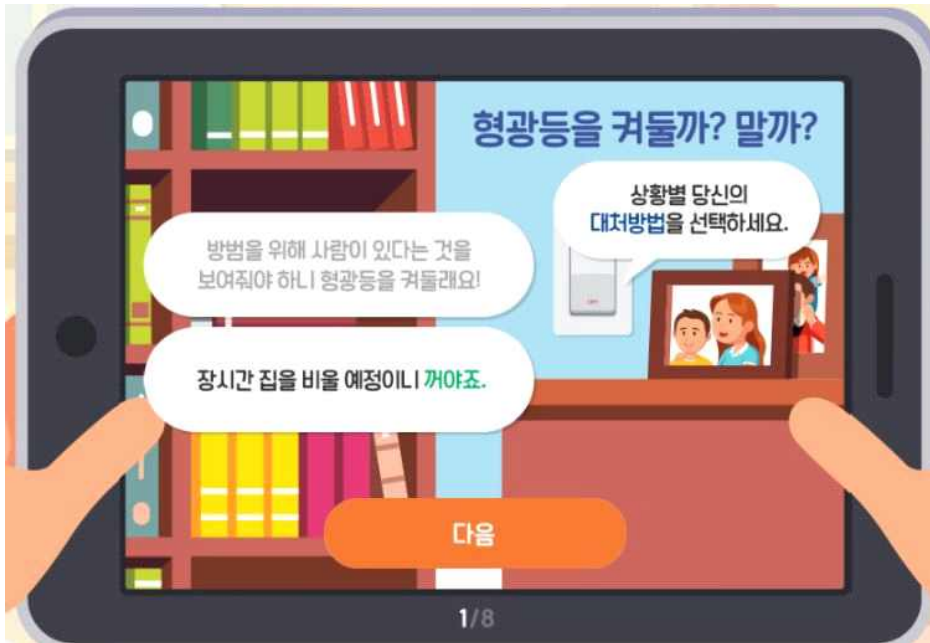
○ 네 번째, 비가오거나 태풍이 불 때에는 가로등, 신호등, 맨홀, 전주 등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.

비가 올 때 전기시설물 주위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.
보행 도중 **감전사고**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물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요.



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 때에는 절 때 가까이 가면 안됩니다. 감전사고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요.

2. 휴가철 및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전기안전 확인 하기
- 첫 번째,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전등은 켜둘까?



상황별 대처방법이 있겠지만, 전기안전을 위해서는 꺼두는게 안전합니다. 타이머를 설치 활용해 시간별 자동으로 켜지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.

- 두 번째,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콘센트는 어떻게?



냉장고, 김치냉장고 등 꼭 필요한 가전제품 외에는 뽑아두는게 안전합니다.

3. 여름철 가전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

○ 제습기 사용하기

생활 속 꿀팁이 절대 아니에요.
물을 빨아들이는 기능 때문에 착각하는
잘못된 사용 방법은?



- ✓ 빨래를 빨리 말리기 위해 빨래 근처에서 작동
빨래에서 떨어진 물로 누전될 수 있어요.
- ✓ 젖은 양말이나 수건을 말리기 위해 제습기 위에 올리기
공기 배출구가 막혀 내부 온도가 올라가 화재가 발생 될 수 있어요.
- ✓ 더 뽕송해지도록 제습기를 오랫동안 작동하기
장시간 작동시 열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.
1~2시간이면 충분하니 예약을 활용해요.

제습기를 켜두고 나가지 마세요. 집안에 사람이 있을때에만 안전하게 사용하세요.

○ 에어컨 사용하기

열을 내는 실외기가 뜨거워지면
화재로 이어져요.



- ✓ 실외기와 벽체 사이에 쌓인 낙엽 등 이물질을 청소해요.
- ✓ 벽체와 10c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주세요.
- ✓ 전원선은 단일 전선으로 설치해주세요.
- ✓ 실외기에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요.

에어컨 사용 시 자주 꺼둔 상태에서 환기를 시킨 후 다시 사용해 주세요.